

# 어거스틴(Augustine)의 회개에 대한 사유와 기독교윤리

유경동

## 목 차

- I. 서론
- II. 회개
- III. 삼위일체론적 회개
- IV. 은총으로서의 자유의지론적 회개
- V. 공교회론적 회개
- VI. 결론: 개혁의 과제로서 회개



**유경동** 박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B.Th.), 연세대학교(B.A.), 미국 에모리대학교(M.Th.)를 졸업하였고, 밴더빌트대학교에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 논문 초록 ■

종교개혁 50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한국 개신교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요구는 교회의 대 사회적 공공성의 확립과, 크리스천의 믿음과 행위의 일치, 그리고 이를 위한 영성의 회복이라고 본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고전에서 대표적인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이라는 신앙적 프레임을 통하여 양자의 긴장과 갈등을 분석하고 크리스천과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의 가치를 변증하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어거스틴의 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회개의 개념과 신학적 적용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개신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어거스틴이 강조한 회개는 삼위일체론적이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진리가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크리스천의 신앙고백과 일치한다. 특히 회개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우치는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이며 강권하시는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어거스틴의 주장은 현대 교회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회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복종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연관이 된다.

어거스틴의 회개론은 ‘은총에 근거한 자유의지의 순종’과 연관이 된다. 어거스틴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는 원죄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수동적이 되면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화 되지만 동시에 인간 선택의 책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한 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주장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회개를 강조하며 이때 회복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게 된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된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 지평에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순종하는 의지가 되는 것이다. 더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회개론은 교회의 공교회론적 책무와 연관이 된다. 세례와 교회의 교육은 형식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와 연관이 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도자의 도덕성과 새신자 교육, 그리고 이단 사조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회개와 연관이 된다. 이는 회개가 단지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바꾸어나가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주제어

회개, 개혁, 어거스틴, 공공성, 양심

## I. 서론

종교개혁 50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한국 개신교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 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요구는 교회의 대 사회적 공공성의 확립, 크리스천의 믿음과 행위의 일치, 그리고 이를 위한 영성의 회복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책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필자는 이 논문에서 어거스틴의 고전을 통한 회개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내용과 이 시대에 던지는 도전에 대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고전에서 대표적인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이라는 신앙적 프레임을 통하여 양자의 긴장과 갈등을 분석하고 크리스천과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의 가치를 변증하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어거스틴의 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회개의 개념과 신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개신교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회심’이 잘못된 것에 대한 내면적 뉘우침이라고 한다면, ‘개혁’은 회심을 통한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도모하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개’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필자는 ‘마음의 변화’를 통한 ‘사회적 개혁’의 뜻을 ‘회개’라는 개념으로 축약하고, 이에 대한 어거스틴의 관점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sup>1)</sup>

어거스틴의 회개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고 본다. 첫째, 회개는 신론과 연관된 삼위일체적 특징을 가진다. 둘째, 회개

1) 필자는 이 소논문에서 어거스틴의 작품에 나타나는 회개의 개념을 살펴보는데 영어 번역문을 참고하였다. 영어로 ‘repentance’는 한국말로 회심, 회개, 뉘우침, 그리고 돌이킴 등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지만 필자는 ‘회개’의 의미로 제한하여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는 자유의지에 의한 자신의 성찰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영성을 겸비하게 된다. 그리고 셋째, 회개는 공공성의 특징을 가지며 도덕적 윤리적 관점과 연관되어 교회의 사회적 책무와 직결된다.

그동안 기독교 학계에 회심과 회개에 대한 연구가 간혹 있었으나, 어거스틴의 회개론을 체계 있게 분석한 글은 없었다. 일반적 연구는 영성개발 차원에서 소개되었고 학술적 개념들은 과거 “평양 대부흥 운동(1909)”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회개와 영성과 연관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어거스틴의 회개 개념을 조직적으로 연구한 소논문은 없었다.<sup>2)</sup> 바라기는 이 논문이 회개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교회의 개혁과 자아의 변혁을 위한 이 시대 바람직한 윤리적 표상을 정립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 II. 회개

어거스틴은 비록 회개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신학적 관점을 펼치지지는 않지만, 그의 책에서 광범위하게 회개의 중요성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sup>3)</sup>

2) 참고, 황홍렬, “1907년 대부흥운동과 사회개혁,” 『선교와 신학』 제18집 (2006. 12), 황홍렬은 이 논문에서 이신칭의와 성화,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사이의 균형이 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다. 106-108. 한편 최무열은 ‘독일교회 내적선교’를 연구하여 한국교회의 개혁과 사회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각각 ‘물량주의와 교회성장주의의 극복’, ‘신앙각성운동’, ‘강력한 디아코니아 운동’, 그리고 ‘개인과 가정, 교회의 갱신을 통하여 국가적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사회개혁 운동’이다. 참고, 최무열, “독일교회 내적선교가 한국교회 교회개혁 및 사회개혁 방향성 설정에 주는 교훈적 함의,” 『선교와 신학』 제39집 (2016. 6): 353-357.

3) 이 글에서 소개하는 어거스틴의 저작들은 다음과 같다. 영문 제목 순서대로, *Anti-pelagian Writings; Confession and Enchiridion, Exposition on the Book of Psalms; Handbook on Faith, Hope, and Love; On Christian Doctrine in Four Books; On the Holy Trinity; Sermon and the Harmony of the Gospels; City of God; The Writings Against the Manichaeans and Against the Donatists* 등. 각 저작의 영문본은 주로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판을 이용하였다. 이하 각주에 A는

어거스틴은 회개를 ‘뉘우치지 않는 마음(impertinence)’의 반대말로서 이 세상에서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의한다.<sup>4)</sup> 회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sup>5)</sup> 하나님이 인간을 회개로 부르시는 거룩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범주보다 훨씬 위대하며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을 회개로 부르신다는 점에 있다.<sup>6)</sup>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죽어 악취가 나는 사람도 회개하게 하여야 한다”고 어거스틴은 주장한다.<sup>7)</sup> 어거스틴은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가 회개의 덕(virtue)이 더해짐으로 용서를 받았을 수 있었던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임을 강조한다.<sup>8)</sup> 하나님은 죄인을 마치 의사가 병자를 부르시는

---

‘article’, Ch는 ‘chapter’, 그리고 N은 ‘number’를 나타내는 표시이며, 이어지는 ‘한 칸 띄어쓰기’는 생략한다. 그 라틴어 숫자 표기로 된 각 책의 장(chapter) 표기는 그대로 따랐음을 밝힌다. 아울러 인터넷 도서관에 있는 자료는 pdf 파일이어서 페이지 대신 ‘A’, ‘Ch’, ‘N’ 등의 표기로 대신하며, 별도의 원본 페이지를 pdf 파일에 명시한 경우 그 페이지 번호를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4) Augustine, *St. Augustin: Sermons on Selected Lessons of the New Testament*, tr. by R. G. MacMullen ed. by Philip Schaf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6*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Sermon XXI, A.20.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6.pdf> (2005년 7월 13일 최종 수정, 2016년 8월 11일 최종 접속).

5) 위의 책, Sermon XXIII, A.3.

6) Augustine, *Exposition on the Book of Psalms*, tr. by A. Cleveland Coxe, ed. by Philip Schaf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8*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Psalm V, A.17.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8.pdf> (2005년 7월 13일 최종 수정, 2016년 8월 11일 최종 접속).

7) Augustine, *Sermons on Selected Lessons*, Sermon XLVIII.

8) Augustine, *Anti-Pelagian Writings*, tr. by Peter Holmes and Robert E. Wallis, ed. by Philip Schaf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5*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Bk.3, Ch.12.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것처럼 부르시며 죄의 질병은 회개를 통해 치료된다고 어거스틴은 확신하였다.<sup>9)</sup>

어거스틴은 회개를 마치 나무 주위를 파고 냄새나는 거름을 주는 것에 비유하였는데, 거름을 주기 위하여 나무 주위에 몸을 숙여 도랑을 파는 것을 참회하는 낮은 자로 묘사하였으며, 거름은 회개의 더러운 예복과 같다고 보았다.<sup>10)</sup> 비록 냄새나는 거름이 더럽지만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초목에 유익하듯이, 회개는 죄를 진 것을 슬퍼하며 자신이 더러움에 빠진 것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sup>11)</sup>

어거스틴이 그의 전작에서 강조하는 회개에 관한 내용은 서론에서 간략하였듯이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째, 어거스틴은 회개를 삼위일체론적 맥락에서 균형 있게 다루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 구조 안에서 회개의 참 뜻이 드러난다. 둘째, 회개를 인간 존재론과 연관하여 하나님의 은총만 강조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물론 양심의 변화를 통하여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께 향하는 것은 은총이지만, 어거스틴은 이때 회복된 인간의 자유의지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며 책임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을 보게 된다. 셋째, 어거스틴은 회개에 대한 교회와 성원의 책무에 관한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회개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와 사회의 개혁적인 측면을 가진다. 이와 같은 관점은 어거스틴이 고전적 현실주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5.i.html> (2005년 6월 1일 최종 수정, 2016년 8월 11일 최종 접속).

9) Augustine, *The Harmony of the Gospels*, tr. by S. D. F. Salmond, ed. by Philip Schaf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6*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Book II, Ch.XXVII, A61.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6.pdf> (2005년 7월 13일 최종 수정, 2016년 8월 11일 최종 접속).

10) 위의 책, *Sermons on Selected Lessons*, Sermon XXII, A.3.

11) 위의 책, Sermon LX, A.1.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변증하려한 그의 노정과도 잘 조화된다고 본다. 이제 어거스틴이 강조한 회개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자.

### III. 삼위일체론적 회개

어거스틴에게 회개의 기준은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론과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회개로 인도하시는 성령론과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어거스틴은 회개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삼으며,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주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죄로부터 영육이 깨끗하여지고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sup>12)</sup>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에 회개를 통한 새로운 속사람을 가질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육체만의 신비로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살리셨다.<sup>13)</sup> 어거스틴이 강조하는 핵심은 인간에게 회개가 없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sup>14)</sup> 따라서 인간의 죄를 구

12) Augustine, *Acts of Disputation against Fornatus the Manichaeon*, tr. by Albert H. Newman, ed. by Philip Schaf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4*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197-198.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4.html> (2005년 7월 13일 최종 수정, 2016년 7월 26일 최종 접속).

13) Augustine, *On the Holy Trinity: Doctrinal Treatises: Moral Treatises*, tr. by Arthur West Haddan, ed. by Philip Schaf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3*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Bk IV, Ch.3.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3.i.html> (2005년 7월 13일 최종 수정, 2016년 8월 11일 최종 접속).

14) Augustine,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on*, tr. by Richard Stothert, ed. by Philip Schaf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4*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Book XIX, A.28.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4.html> (2005년 7



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회개 아래 자신을 굴복시킬 때 주어지는 축복은 죄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sup>15)</sup>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한 율법과 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게 된다.<sup>16)</sup> 하나님이 떠나셔서 죽은 영혼은 회개로 인해 다시 소생하며 믿음을 통해 삶이 새롭게 된다.<sup>17)</sup> 따라서 회개를 통하여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기를 죽이는 믿음의 삶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욱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졌던 불신과 죽음의 권세가 파괴되는 것이다.<sup>18)</sup>

둘째,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의 기준이 된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인간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한다.<sup>19)</sup>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이 회개할 때 뿐이 아닌 회개를 하도록 인도되는 데에도 필요하다.”<sup>20)</sup>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에 마지막 형벌을 보류하시고, 그분을 박해한 이들마저 불경건함에

월 13일 최종 수정, 2016년 8월 11일 최종 접속).

15) Augustine, *The City of God*, tr. by Marcus Dods, ed. by Philip Schaf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2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Bk. XV, Ch. 7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2.html> (최종 수정 2005년 6월 13일, 최종 접속 2016년 7월 26일).

16) Augustine,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on*, Book XIX, A.27.

17) Augustine, *On the Holy Trinity*, Book IV, Ch.3.

18) 위의 책, Book IV, Ch.3.

19) 위의 책, Book XII, Ch.11.

20) Augustine, *The Enchiridion*, tr. by J. F. Shaw, ed. by Philip Schaf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3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82.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3.i.html> (2005년 7월 13일 최종 수정, 2016년 8월 11일 최종 접속).

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지금도 죄인들을 회개로 초대하신다.<sup>21)</sup>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심판 날까지 쌓아두지 않는다.”<sup>22)</sup>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죄인들을 끝까지 회개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구십 구명의 의로운 이들보다 참회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더 기뻐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다.”<sup>23)</sup> 따라서 회개는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심과 연관이 된다.<sup>24)</sup>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악에 대한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을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허용하신다.<sup>25)</sup> 회개는 그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의지한다. 따라서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회개하면 용서하여야 한다는 말씀(눅 17:4)은 회개 할 때마다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sup>26)</sup>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통하여 회개로 치유가 되면,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다.<sup>27)</sup>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

21) Augustine, *Exposition on the Book of Psalms*, Psalm VII, A.12

22) Augustine, *On the Catechising of the Uninstructed*, tr. by S. D. F. Salmond, ed. by Philip Schaf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3*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24, 48.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3.i.html> (2005년 7월 13일 최종 수정, 2016년 8월 11일 최종 접속).

23) Augustine, *Confession and Enchiridion*, tr. by Albert C. Outler, (Dallas, Texa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ress, 1955), Book XIII, Ch.III.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augustine/confessions.html> (최종 수정 2007년 1월 1일, 최종 접속 2016년 8월 11일).

24) Augustine, *City of God*, Book I, Ch.8.

25) Augustine, *On the Catechising of the Uninstructed*, Ch.19, A.32.

26) Augustine, *Sermons on Selected Lessons*, Sermon LXIV, A.1.

27) Augustine, *On the Morals of the Catholic Church*, tr. by Richard Stothert, ed. by Philip Schaf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4* (Grand Rapids,

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눅 24:47)의 말씀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며 성경에 예언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sup>28)</sup>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책망 하시지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악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도록 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해석하며 특히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주목한다.<sup>29)</sup>

셋째, 회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자녀가 되는 축복으로 이어진다.<sup>30)</sup> 이 때 성령은 항상 진리로 인도하시는 기준이 되므로 극단적인 경우, 과거의 죄 때문에 인간이 그 죄를 스스로 책임지기 위하여 자살과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하며, 죄가 회개로 인해 치유되는 것을 믿고 현실에서 진리로 살아가야 한다.<sup>31)</sup> 회개란 단지 잘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의 불안한 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에 스토아학파처럼 명상을 통하여 자신을 통찰하고 지혜로써 내면에서 발견되는 어떤 죄악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식으로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없다.<sup>32)</sup> 왜냐하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34, A76.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4.html> (2005년 7월 13일 최종 수정, 2016년 8월 11일 최종 접속).

28) 위의 책, Book X, Ch.32.

29) Augustine, *Concerning the Nature of Good*, tr. by Albert H. Newman, ed. by Philip Schaf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4*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48.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4.html> (2005년 7월 13일 최종 수정, 2016년 8월 11일 최종 접속).

30) Augustine, *Handbook on Faith, Hope, and Love*, trans. by Albert C. Outler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10, N.33.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augustine/enchiridion.pdf> (2005년 6월 1일 최종 수정, 2016년 8월 11일 최종 접속).

31) Augustine, *City of God*, Book I, Ch.26.

32) 위의 책, Book XIV Ch.8.

면 죄악의 문제에 대하여 인간은 올바른 깨달음에 다다를 수 없으며 그러한 악을 스스로 감내할 힘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개는 현재 성령의 도우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의 참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이런 진리의 과정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해석하였다.<sup>33)</sup>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어거스틴이 강조한 회개는 삼위일체론적이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진리가 인간을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크리스천의 신앙고백과 일치한다. 특히 회개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우치는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총이며 강권하시는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어거스틴의 주장은 현대 교회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회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지의 복종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연관이 된다. 그 내용을 다음에서 살펴보자.

#### IV. 은총으로서의 자유의지론적 회개

회개란 전적으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기에 축복이다. 그러나 회개의 과정에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왜곡된 자아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 따라서 어거스틴에게 양심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요소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개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만 기대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양심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던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시키

33) Augustine, *Enchiridion*, Ch.69.

며, 나아가 육체의 욕구를 억누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회개는 인간을 계몽하여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기에 회개의 기간이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중요하다.<sup>34)</sup> 그뿐만이 아니라 회개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전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개는 명령이며 인간은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한다.<sup>35)</sup>

어거스틴은 인간이 원죄와 교만 때문에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죄를 회개할 가능성은 부정하였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유의지가 회복된다고 보았다.<sup>36)</sup> “율법에 의하여 죄를 알게 되고, 믿음에 의하여 죄에 대한 은총을 얻고, 은총에 의하여 죄의 질병으로부터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지며, 영혼의 치료로부터 의지의 자유가 생기며, 의지의 자유로부터 의에 대한 사랑이, 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sup>37)</sup> 그리고 회개 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며, 그 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다.<sup>38)</sup>

어거스틴은 근본부터 자유의지가 없는 악한 종족이라면 회개가 적용될

34) Augustine, *Enchiridion*, Ch.65.

35) Augustine, *Of Holy Virginitly*, tr. by C. I. Cornish, ed. by Philip Schaf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of the Christian Church* Vol.3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Sec. 42.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3.i.html> (2005년 7월 13일 최종 수정, 2016년 8월 11일 최종 접속).

36) Augustine, *Anti-Pelagian Writings*, “Grace Establishes Free Will,” *A Treatise on the Grace of Christ, and on Original Sin, On the Grace of Christ*, Ch.52[XXX], 106.; 같은 책, Ch.36[XXXII], 134.

37) 위의 책, Ch.52[XXX], 106. 참고로 어거스틴은 “복된 암브로시우스는 같은 작품의 아홉 번째 책에서, 의지적 행동이라는 것을 의심 할 수 없는 회개가 주님의 자비와 도움으로 인해 행동으로 옮겨진다고 주장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회개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위의 책, Ch.49.

38) Augustine, *Exposition on the Book of Psalms*, Psalm XVIII, A.9.

수 없다고 보았다.<sup>39)</sup>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공의로운 법적 처벌, 옳은 행실의 가치, 죄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용서마저도 존재 할 수 없다.”<sup>40)</sup> 이와 같은 관점에서 회개와 연관된 어거스틴의 ‘자유의지’와 연관된 인간 존재론은 다소 낙관적인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하여 인간의 양심과 자유의지가 회복되며 이런 맥락에서 영혼 또한 악하지 않기 때문이다.<sup>41)</sup> 따라서 인간이 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으로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인간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서야 한다.<sup>42)</sup>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고집을 부린다면 오히려 이 결과는 정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sup>43)</sup>

둘째, 어거스틴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로 지향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은총에 초대받은 인간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인간이 겉으로 볼 때 책망 받을 만한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바로 잡으자 하는 것을 바로잡으시며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분이지만, 인간의 자유 의지는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sup>44)</sup> 하나님은 세상에서 보잘 것 없는 이들의 회개를 통하여 이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스스로 한없이 높은 교만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sup>45)</sup>

39) Augustine, *Disputation of the First Day*, A.17.

40) 위의 책, A.20.

41) 위의 책, Ch.14.

42) Augustine,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tr. by William Findlay, ed. by Philip Schaf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6*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 X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6.pdf> (2005년 7월 13일 최종 수정, 2016년 8월 11일 최종 접속).

43) Augustine, *Sermons on Selected Lessons*, Sermon VI, A.10.

44) Augustine, “A Treatise on Rebuke and Grace,” *Anti-Pelagian Writings*, Ch.8.

45) Augustine, *Exposition on the Book of Psalms*, Psalm XXIX, A.5.

같은 인간이면서 어떤 이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있던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아닌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sup>46)</sup> 이와 같은 관점을 어거스틴이 취하는 이유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함이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그가 주님을 배반 한 뒤 그것을 회개하고, 만약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했으면 용서를 구했을 것이다. 용서를 구했다면 소망을 얻었을 것이고, 소망을 얻었다면 자비에 대한 소망을 품었을 것이고, 자비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면 절망 가운데서 자신의 목을 매달지 않았을 것이다”<sup>47)</sup>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벌을 자초한 것인데, 이는 인간에게 회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통하여 은총을 받아들이는 역할도 하지 만 반대로 인간은 회개의 순간에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어거스틴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예언자적 지평에서 살펴본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 내용을 살펴보자.

셋째, 어거스틴은 회개의 자유의지론 관점에서 양심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예언자적 기능’을 강조한다. 회개의 예언자적 기능은 회개를 요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죄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최후의 순간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다윗의 예를 통하여 회개를 통한 양심과 자유의지의 역할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회개는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예언적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다윗은 악랄한 범죄의 주범이었고 하나님은 그 범죄를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으며 다윗은 회개를 통해 그 죄를 속량받았다.”<sup>48)</sup> 다윗은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죄를

46) 위의 책, Psalm LVI, A.6.

47) 위의 책, Psalm CIX, A.9.

48) Augustine,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on*, Book XXII, A.87.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었다.<sup>49)</sup> 어거스틴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다윗처럼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할 것을 강조한다. 회개가 예언적 중요성을 가지는 점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미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에 있다. 어거스틴은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를 사랑하게 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죄가 용서받은 것 때문이 아니라 회개의 겸손을 통해 치유된 다윗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sup>50)</sup>

어거스틴은 성경에 나타나는 다양한 회개의 내용이 있지만 특히 다윗이 그 예로 제시되는 이유는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고집스럽게 회개의 치유를 무시하거나 구원을 얻거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에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본다.<sup>51)</sup>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간음에 빠졌어도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면, 간음한 이와 그 어떤 약조를 하였어도 그것은 파기된 것이기에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sup>52)</sup> 다윗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의 아들이 처할 영원한 파멸에서 그를 탈출시키기 위해 그가 살아서 회개하기를 원했다.<sup>53)</sup> “이런 이유로 다윗은 그의 아들이 전쟁에서 잡힌 후 절대로 죽이지 말 것을 명령했는데, 그가 잡힌 뒤 회개의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아들의 죽음을 크게 슬퍼한 이유는 아들을 잃어서가 아니라, 불경건한 사통자이며 패륜아인 이 아들이 당장 받게 될 벌에 대해 알았기 때문이다.”<sup>54)</sup>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어거스틴은 인간은 비록 절망에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는 소망을 잃지 말고 자신

49) 위의 책, Book XXII, A.67.

50) 위의 책, Book XXII, A.87.

51) 위의 책, Book XXII, A.97.

52) Augustine, "Moral Treatises, On Continence," *On the Holy Trinity*, Sec.4.

53) Augustine,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on*, Book XXII, A.66.

54) Augustine, *City of God*, Book III, Ch.21.



의 의지를 돌이켜 하나님께 능력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이런 맥락에서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함으로써 의지의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좌절하지 않는 예언자적 사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어거스틴의 회개론은 ‘은총에 근거한 자유의지의 순종’과 연관이 된다. 어거스틴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는 원죄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가 완전히 수동적이 되면 하나님의 은총은 절대화되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는 선택과 책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주장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회개를 강조하며, 이때 회복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게 된다는 관점을 가진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된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 지평에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하게 된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 V. 공교회론적 회개

지금까지 필자는 어거스틴의 사상에서 삼위일체론적 회개와 은총으로서의 자유의지론적 회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거스틴에게 회개는 개인의 구원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아우르는 공교회적 특성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거스틴은 회개를 통하여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강조하여 공교회적 특성을 가진다. 회개에 대한 교회의 공교회성은 회개

를 선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에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마다 그의 죄가 면제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죄가 면죄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면 교회의 품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와 똑같은 믿음과 회개의 이유로 구원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어거스틴은 확신하고 있다.<sup>55)</sup> 어거스틴은 당시에 오류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의로운 것이며, 교회를 통한 회개의 축구가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이끌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sup>56)</sup>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은 구약의 ‘다말’과 ‘유다’의 온전하지 못한 관계(참조: 창 28장)를 통하여 회개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를 교회의 사명과 연관시키고 있다. 다말은 자식을 가지기 위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데, ‘다말’의 의미는 ‘옷을 갈아입음’이며, 그 결과로 ‘고통의 대가’가 따르게 된다.<sup>57)</sup> ‘유다’의 의미도 또한 ‘고백(confession)’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다말과 유다의 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죄를 지었어도 온전한 고백에 이르게 되면,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며 이러한 회개는 공동체를 위한 교회의 열매가 된다고 보았다.<sup>58)</sup> 따라서 인간 상호 간에 죄의 문제에 연루될 수 있지만 이를 누우치면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온전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회개의 공교회론적 특징은 ‘세례’와 ‘주기도문’, 그리고 성원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 같은 것에 있다고 어거스틴은 보았다. 그는 주님이 받으신 세례는 모형으로써 사람들에게 진정한 죄 사함이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회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보았다.<sup>59)</sup> 사

55) Augustine, *City of God*, Book I, Ch.18.

56) Augustine, "A Treatise on the Grace of Christ, and on Original Sin, On Original Sin," *Anti-Pelagian Writings*, Ch.18.

57) Augustine, *Reply to Faustus the Manichaeon*, Book XXII, A.86.

58) 위의 책, A.86.

59) 위의 책, Book V, Ch.10, A.12.

람이 깊이 악에 빠져도 한번 받은 세례는 없어지지 않으며, 또 다시 죄를 지어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sup>60)</sup> 따라서 세례는 회개의 성례적인 공적 기능을 가진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는 말씀은 교회의 세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라고 보며, 다시 거듭나기 위하여서는 세례와 아울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야 한다고 어거스틴은 강조한다.<sup>61)</sup>

어거스틴은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며 소소한 죄들이 용서 받는다고 본다.<sup>62)</sup>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것이라 여기지 말아야 한다.”<sup>63)</sup> 따라서 주기도문의 경우처럼 회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용서하는 상호적 특성을 보인다.

어거스틴은 회개는 또한 합심하여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두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참조: 창 18-19장)’의 경우처럼,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하던지, 아니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로 말미암아 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참조: 요나서 3장).<sup>64)</sup>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멸망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이러한 공교회적 사명을 가지고 공동체의 온전한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을 어거스틴은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어거스틴은 회개의 공교회적 특징으로써 물질과 성(性) 문제, 그리고 이단사조와 연관된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치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도자의 높은 도덕성과 죄를 용서하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다. 누가복음에서 세례요한은 “회개의 열매는 선한 행실”이라고 하

60) 위의 책, Book V, Ch.15, A.20.

61) Augustine, *Handbook on Faith, Hope, and Love*, Ch.14, N.49.

62) Augustine, *Enchiridion*, Ch.71.

63) 위의 책, Ch.74.

64) Augustine, *City of God*, Book XXI, Ch.24.

였음을 어거스틴은 강조하고 있다(참조: 누가복음 3장 1-22절).<sup>65)</sup> 어거스틴은 무엇보다도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회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sup>66)</sup> 특히 강한 성욕의 본성에 항복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sup>67)</sup> 아울러 이단과 같은 사조에 대항하는 공동체를 보호할 교회의 책무도 포함되며, 이단자를 책망할 때마저도 진리로 회개케 하여야 한다고 어거스틴은 강조한다.<sup>68)</sup>

어거스틴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온 늑대를 물리치기 위하여서는 이들에게 유혹받았던 자들이 회개 후에 폭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sup>69)</sup> 교회는 자신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대적들을 위하여 지속해서 기도하여야 하는데, “지금도 그녀(역자 주: 교회)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녀의 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은 아직 유효한 회개를 할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어거스틴은 해석한다.<sup>70)</sup> 따라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을 주님이 용서하였듯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를 공격하고 악의를 가진 이들이 회개에 이르기까지 노력하여야 한다.<sup>71)</sup>

교회가 공교회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지도자의 높은 도덕성이 당연히 하게 요구되지만 아울러 회개한 후 사면도 필요하다고 어거스틴은 이해하였다. 공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사제와 주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같은 직분을 다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악을 치유하는 평화의 능력과

65) Augustine, *The Harmony of the Gospels*, Book II, Ch.XII, A.26.

66) Augustine, *City of God*, Book I, Ch.10.

67) Augustine, “A Treatise on the Merits and Forgiveness of Sins and on the Baptism of Infants,” *Anti-Pelagian Writings*, Book II, Ch.4.

68) Augustine, *Sermons on Selected Lessons*, Sermon XXI, A.7.

69) Augustine, “Moral Treatises, Against Lying,” *On the Holy Trinity*, Sec.11.

70) Augustine, *City of God*, Book XXI, Ch.24.

71) Augustine, “The Correction of the Donatists,” *The Writings Against the Manichaeans and Against the Donatists*, Ch.7, A31.

허다한 죄를 덮는 박애 때문이라고 어거스틴은 해석하였다.<sup>72)</sup> 신약성경에 베드로가 회개한 뒤에 사도로 남아 헌신한 경우도 이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sup>73)</sup> 따라서 죄의 크기 정도를 떠나서 교회는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며,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절망하여서도 안 되는 것이다.<sup>74)</sup> 그러나 교회 안에 심각한 불화가 있으므로 직분을 지키려고 거짓으로 회개하는 이들을 향한 어느 정도의 엄격함이 필요하다.<sup>75)</sup> 특히 교회는 초신자들의 회개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전적인 회개를 통해 개선 될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초신자들은 배워야 한다고 어거스틴은 주장한다.<sup>76)</sup>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어거스틴의 회개론은 교회의 공교회론적 책무와 연관이 된다. 회개의 선포, 성례전적 회개의 의미로서의 세례, 올바른 회개를 가르치는 교회의 교육은 교회의 사명이다. 공동체를 책임진 지도자의 도덕성과 이단 사조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적 노력도 바른 회개와 연관이 된다. 이는 회개가 단지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바꾸어 나가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개혁의 기능과도 연관이 된다. 회개를 통하여 고백 중에 진리를 서로 말하며,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 가운데로 들어오면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공교회적 특징을 가지는 회개는 개혁의 과제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72) 위의 책, Ch.10, A.44.

73) 위의 책, Ch.10, A.45.

74) Augustine, *Enchiridion*, Ch.65.

75) Augustine, "The Correction of the Donatists," *The Writings Against the Manichaeans and Against the Donatists*, Ch.10, A.45.

76) Augustine, *On the Catechising of the Uninstructed*, Ch.26.

## VI. 결론: 개혁의 과제로서 회개

회개를 통하여 인간과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은 비록 고통과 고난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다.<sup>77)</sup> 은총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회개와 개혁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부할 수 있다.<sup>78)</sup> 어거스틴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도성과 땅의 도성 사이에서 마지막까지 갈등한 인간 존재론의 모습을 그린다. 어거스틴이 볼 때 선한 이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악한 이들도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선한 이들이] 같이 징계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동일하게 부패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비록 똑같은 수준이 아니더라도, 선한 이들도 악한 이들과 처럼 현재의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악한 자들은 이런 사례를 통해 책망 받고 개혁하여 현재 가볍게 여기고 있을 영원한 삶을 붙잡게 될 수도 있다.”<sup>79)</sup>

이와 같이 어거스틴에게 회개는 선한 이들에게나 악한 이들에게나 하나님의 은총으로써 축복이며 “네가 아직 살아 있는 것은 네가 책망받아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개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를 남겨두셨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한다.<sup>80)</sup> 이런 맥락에서 회개에 이은 개혁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자선을 많이 베풀며 남에게 자비를 보여 주어도 자신의 악한 삶을 개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sup>81)</sup>

필자는 지금까지 어거스틴의 저서를 통하여 세 가지 관점에서 회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각각 ‘삼위일체론적 회개’, ‘은총으로서의 자유

77) Augustine, *City of God*, Book I, Ch.1.

78) 위의 책, Book I, Ch.8.

79) 위의 책, Book I, Ch.10.

80) 위의 책, Book I, Ch.34.

81) 위의 책, Book XXI, Ch.27.

의지론적 회개’, 그리고 ‘공교회론적 회개’이었다. 필자가 어거스틴의 회개에 관한 사상을 위의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 이유는 한국 교회 내 팽배한 ‘값싼 은총’으로서의 회개, 자신의 개혁과 갱신을 추구하지 못하고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회개’, 그리고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에 대하여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어거스틴은 자신의 회개에 관한 단상을 필자의 이론적 구성과 같이 조직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필자의 해석이 어거스틴의 관점을 재구성하는 데에서 방법론적으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다.

필자가 기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어거스틴의 회개론이 기여할 수 있는 신학적 관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어거스틴의 회개론은 철저하게 삼위일체론적 신관을 통하여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 피조물의 회복을 바라신다. 회개를 통하여 인간의 상실하였던 자아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회복된다. “현재의 회개는 치유의 고통이고 그날(심판날)의 회개는 형벌의 고통”이다.<sup>82)</sup> 그러나 회개는 인간에게 최고의 은혜이다. 회개가 없이는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그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회개를 통한 온전한 자아의 의식은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자신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리고 그 은총이 부활까지 이어지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책망받을 수 밖에 없다.<sup>83)</sup>

회개가 인간에게는 전적인 은총이지만, 그 대가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크다. 왜냐하면 회개는 삼위일체의 기독교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부활의 소망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82) Augustine, *Exposition on the Book of Psalms*, Psalm LVIII, A.14.

83) Augustine, *Sermons on Selected Lessons*, Sermon LIX, A.1.

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성령의 진리는 역사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이러한 회개론은 현대 교회가 회복하여야 할 영적 유산이라고 여겨진다. 회개가 ‘값싼 은총’으로 비치는 이유는 삼위일체론을 통한 십자가의 구속과 그 은혜가 축소되어 해석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회개’를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십자가의 사건’은 회개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회개의 출발점을 ‘기독론’으로 보았다. 따라서 ‘십자가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회개’는 관념이며, 그리고 ‘성령이 없는 회개’는 자기기만일 수 있다.


둘째, 어거스틴의 회개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을 통한 자유 의지의 회복과 나아가 그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며 나아가는 인간존재론이 강조된다. 현대 기독교의 인간론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강조하여 자칫 회개를 통한 ‘인간 의지의 수동론’이나 ‘정적주의(stillness)’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는 양심의 기능은 부정하였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를 위하여 지속해서 기다리시며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강조하였다. 은총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 은총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의지를 온전히 순종하여야 하는 회개의 예언자적 기능에 대한 강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지의 타락 가능성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탁함으로써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비록 이 땅의 도성에서 그 의지가 흔들리고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이는 고전적 기독교현실주의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감당하여야 할 신앙의 책무라고 보았다. 회개를 통하여 인간이 절망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향하는 신앙의 노정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분리된다. 따라서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이기에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크리스천이 놓지 말아야 할 영적 유산이 되는



것이다.

셋째, 회개는 기독교인이 출발점이 되며 십자가 앞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기회가 되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이며 개혁의 성향을 가진 특징이 있다. 현대 교회가 비난 받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크리스천의 신앙과 교회의 기능이 사사화(privatization) 되어서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교회는 점점 주변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어거스틴이 강조하는 회개는 ‘공공성’의 특징을 가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회개의 의미와 연관된 교회의 세례와 지도자의 영성, 그리고 집단 전체가 한 마음으로 드러야 할 회개의 강조는 공공성을 통하여 교회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개혁의 과제와도 연관이 된다.

현대 교회가 ‘성장’과 내면적 변화에 집중한 ‘영성’만 강조하게 되면, 자칫 회개를 통한 갱신과 변혁에 소홀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회개의 결과에 따른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심판과 징벌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니느웨성의 백성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회개의 공공성은 교회를 넘어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회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여야 할 크리스천의 영성이며 교회의 책무이고 나아가 사회를 개혁하는 영적 유산이다. 회개가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고, 회개 속에 작동하는 양심의 변화와 의지의 순종,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을 선포하는 예언자적 소리임을 다시 한 번 각성함으로써 이 시대 회심과 개혁의 사명을 다하는 크리스천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Augustine, *Anti-Pelagian Writings*, translated by Peter Holmes and Robert E. Wallis,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5* edited by Philip Schaff,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5.i.html>. 최종 수정 2005년 6월 1일. 최종 접속 2016년 7월 26일.

\_\_\_\_\_, *Confession and Enchiridion*, translated by Albert C. Outler (Dallas, Texas: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Press),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augustine/confessions.html>. 최종 수정 2007년 1월 1일. 최종 접속 2016년 8월 11일.

\_\_\_\_\_, *Exposition on the Book of Psalms*, translated by A. Cleveland Coxe,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8* edited by Philip Schaff,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8.pdf>. 최종 수정 2005년 7월 13일. 최종 접속 2016년 8월 11일.

\_\_\_\_\_, *Handbook on Faith, Hope, and Love*, translated by Albert C. Outler,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augustine/enchiridion.pdf>. 최종 수정 2005년 6월 1일. 최종 접속 2016년 8월 11일.

\_\_\_\_\_, *On Christian Doctrine in Four Books*, translated by J. F. Shaw,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2* edited by Philip Schaff,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augustine/doctrine.pdf>. 최종 수정 2005년 6월 1일. 2016년 8월 11일.

\_\_\_\_\_, *On the Holy Trinity: Doctrinal Treatises: Moral Treatises*, translated by Authur West Haddan,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3* edited by Philip Schaff,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3.i.html>. 최

중 수정 2005년 7월 13일, 2016년 8월 11일.

\_\_\_\_\_, *St. Augustin: Our Lord's Sermon on the Mount: According to Matthew*, translated by William Findlay,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6* edited by Philip Schaff,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6.pdf>. 최종 수정 2005년 7월 13일. 최종 접속 2016년 8월 11일.

\_\_\_\_\_, *St. Augustin: Sermons on Selected Lessons of the New Testament*, translated by R. G. MacMullen,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6* edited by Philip Schaff,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6.pdf>. 최종 수정 2005년 7월 13일. 최종 접속 2016년 8월 11일.

\_\_\_\_\_, *St. Augustin: The Harmony of the Gospels*, translated by S. D. F. Salmond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6* edited by Philip Schaff,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6.pdf>. 최종 수정 2005년 7월 13일. 최종 접속 2016년 8월 11일.

\_\_\_\_\_, *The City of God*, translated by Marcus Dods,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2* edited by Philip Schaff,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2.html>. 최종 수정 2005년 6월 13일. 최종 접속 2016년 8월 11일.

\_\_\_\_\_, *The Writings Against the Manichaeans and Against the Donatists*, translated by Richard Stothert and Albert H. Newman, in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ume 4* edited by Philip Schaff,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웹사이트.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4.html>. 최종 수정 2005년 7월 13일. 최종 접속 2016년 8월 11일.

최무열. “독일교회 내적선교가 한국교회 교회개혁 및 사회개혁 방향성 설정에

주는 교훈적 함의.”『선교와 신학』 제39집 (2016. 6)

황홍렬. “1907년 대부흥운동과 사회개혁.”『선교와 신학』 제18집 (2006. 12)

■ 접수(투고)일 2016. 8. 31 ■ 심사(수정)일 2016. 9. 27 ■ 게재 확정일 2016. 10. 4

## ■ Abstract ■

## Augustine's Thoughts of Repentance and Christian Ethics


Kyoung Dong Yoo

The concept of repentance that Augustine emphasizes is Trinitarian. This Augustinian theology is well identified with protestant Christian creed stressing the grace of God. However, current Christianity tends to ignore the significance of the divine grace in terms of human repentance. The point of Augustinian theology of repentance indicates that there is no redemption without repentance.

Augustinian doctrine of repentance is related to his idea that human free will is based on God's grace. Due to original sin, humans' natural free will is only confined to freedom to commit sin. However, through God's grace, human free will can be restored to the obedience to God.

---

**Kyoung Dong Yoo** graduated from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B. Th.), Yonsei University(B.A.), Emory University(M.Th.) and Vanderbilt University(Ph.D.). He is now a professor of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theology of repentance is deeply connected to catholic responsibility of Christian church. Baptism and all the church education which must emphasize the morality of church leadership should reflect the importance of repentance. Christians' repentance is not only about the personal confession of faith, but also about the communal responsibility of Christian community to reform the whole society. 

**Key Words**

repentance, Reformation, Augustine, public, conscience